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주거 안정 돕는 ‘주공’의 복지사

대한주택공사의 이윤화, 정재연 사회복지사

| 기사/사진 : 배현정 객원기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윤화(26) 정재연(25)씨는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의 사회복지직에 나란히 발탁되었다.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복지·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그녀들의 막중한 임무다.

“저소득층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복지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주거 복지 욕구까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어깨

있다. ‘맞춤형 임대 주택’의 입주민들에게 주거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다. 사회복지 기관과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복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일도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씨가 입주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큰 틀을 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정 씨는 보다 일선에서 입주민들과 교류하며 주거 여건 개선에 애를 쓴다. 주요 업무로는 집이 철거되었거나 집주인으로부터 급하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첫 진출, 사회복지사 역할 새롭게 정립 필요 공사내 사회복지계의 목소리 대변하는 역할도 담당

무겁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사업의 방향이 양적 공급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복지로 전환되면서 도입된 것.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사업이 골자. 이 사업이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만큼, 이곳의 입주민을 관리 지원하는 사회복지직의 채용은 그녀들이 처음이었다.

“사실 대한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직을 뽑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사회복지직이 점점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민 주거 복지 지원이 주업무

입사 후 이 씨는 본사 임대관리처에, 정 씨는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에 각각 배치됐다. 이 씨는 본사 근무인 만큼 입주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해 지사에 이를 전달하는 일을 맡고

오갈데 없는 주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및 특정 관리인이 없는 다가구 매입 주택에서 자치관리인을 뽑아 관리 및 교육을 돕는 일 등을 하고 있다. 현재 공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그 첫 진출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나가야 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업무다. 사회복지 마인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기관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이들은 직장 내에서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고 전한다. 이 씨는 “건교부 산하의 공사다 보니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사회복지인들과는 차이가 많다”며 “때문에 입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복지 욕구를 공사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강점이자,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들의 채용 당시 채용 조건으로 경력 1~2년의 사회복지사를 원했다. 이 씨는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 씨는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 1년과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

“ 대한주택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사업의 방향이 양적 공급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복지로 전환되면서 도입된 것. △다가구매입임대 △전세 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사업이 골자. 이 사업이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만큼, 이곳의 입주민을 관리 지원하는 사회복지직의 채용은 그녀들이 처음이었다. ”

력이 있다. 이처럼 경력 1~2년의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이 대한주택공사라는 큰 공무원 조직에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사회복지사의 대표로서 일을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정 씨는 “복지관에서는 동료들이 다 사회복지사였지만 이곳에서는 홀로 일을 추진하다 막힐 때 이를 끌어줄 슈퍼바이저가 없는 게 힘든 점”이라고 고충을 털어냈다.

공사에 ‘복지 마인드 전파’ 자부심

이렇게 사회복지 마인드가 적용되기 어려운 환경에 이를 조금씩 전파해 가고 있다는 것이 동시에 이들의 큰 자부심이 되기도 한다.

이 씨는 “자활과 재활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에게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씨보다 상대적으로 일선에서 입주민을 접하는 정 씨는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전했다. “당장 길거리에 나왔게 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손을 뻗으면 너무 고마워하죠. 그러한 감사의 뜻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들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겐 정말 큰 선물로 느껴집니다.”

정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그녀가 대학 재학 당시 자원봉사하던 어린이공부방의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다가구 임대주택을 계약하러 온 일을 꼽았다. “부모님과 형제가 다섯이나 되는데 방 2칸에서 살다가, 공사의 ‘전세 임대’ 지원을 받아 넓은 집으로 옮기게 됐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 이윤화 사회복지사(좌), 정재연 사회복지사(우)

외국어 등 경쟁력 갖춰 공사 도전 필요

이들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며 처음 시작이니까 현재의 성과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따스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0월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무직의 복지 분야 담당자를 추가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 같은 신규 사무직의 복지 분야 채용과 관련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뿐 아니라 학점과 외국어 공부도 충실하게 해서 경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후배 사회복지사들의 공사 진출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